

영원히 살 것처럼 공부하자

梁 淳 瑛

(濟州大 國語教育科)

프랭클린의 “영원히 살 것처럼 공부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공부하라”는 금언은 오늘 우리들이 유념할 만한 내용이지 않나 생각해 본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工夫라는 것이 반드시 다른 부문에 우선하는 절대적 조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공부의 가치와 공부의 존엄에 대한 믿음만은 이 사회의 미래에 대한 當爲 또는 道德律로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믿는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미래지향적 당위 또는 도덕률에 토대를 둘 때에만 그 존재 가치를 획득하고 타인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공부라는 것은 다름아닌, 일과 사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치를 터득하게 하고 또한 그것들이 정당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며 나아가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깨닫도록 한다는 점에서 분명 그 가치와 존엄이 크다. 따라서 그 큰 가치와 존엄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근거할 만한 도덕률이 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네 실정은 어떠한가. 우리의 문제는 공부에 관한 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초·중등학교 시절에는 ‘잘못된’ 공부를 죽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대학에서는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공부를 ‘하지 않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문제의 지적이 조금은 어중을린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라면 분명 우리의 공부는 미래에 대한 당위 또는 도덕률로서의 기능을 완전 상실하였다고 극언하여도 과장을 것이다.

대학입시가 치열하고 학교교육이 입시 준비에 연연하는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초·중등학교 시절의 공부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여 대학진학을 위한 방편으로서 잘못된 공부의 극단이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大學에서의 工夫 문제로서 우리 대학의 실정을 잠깐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비록 우문우답일런지는 모르겠으나 대학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들이 기회에 세삼스레 확인해 보고자 한다.

확실히 요즈음의 대학엔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학생도 그렇고 교수 또한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여기서 공부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공부하는 것이냐 하는 자못 의미심장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야 어떻든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학생이든 교수든 시냇가로 外遊하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은 필자의 老眼 탓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요즈음의 대학을 보면 교수층에만 하더라도 박사학위는 그 자격 필수조건이고 학과 교수의 대부분이 박사학위 취득자들이고 보면 교수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분명 어폐가 있으며 小樺大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작금의 대학교수들은 대학의 젊은 영혼들에게 학문과 사상, 교육과 문화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심어주는 상징으로서 존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과장된 지적일까?

최근 政治의 계절을 맞아 온갖 군상들이 봄꽃 피듯 만개하고 있는데, 대학교수나 출신자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아니 한 몫을 한다기보다 큰 몫을 단단히 한다는 표현이 옳을런지도 모르겠다. 여·야의 국회의원 공천후보자로 소위 참신한 인물이라는 미명하에 반드시 몇몇 대학교수들이 부가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보면 그러한 몫 찾기는 외유라기보다도 당연한 행사로 여겨짐직도 하다. 내각 교체시 명망있는 교수들이 거론되거나 입각하고 있고 더욱이 최근에는 소위 大權走者로도 동분서주하는 입장이고 보면, 그분들이야말로 대학교수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일런지도 모르겠다.

대학 밖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학 안의 형편은 나온가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온갖 보직과 단과대학장 선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말 그대로의 平教授는 어쩌면 연구실 문지기 정도로 취급한다고 하여도 별다른 반박을 못할 형편이다. 그래도 연구실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모르되, 많은 평교수들은 연구실에도 재미를 잃은 채 일찍부터 자리를 비우기 일쑤이다. 소위 대학의 空洞化 현상에 많은 교수들이 음으로 양으로 일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편학에 별다른 긴장을 못 갖게 될 뿐더러 강의도 맥빠지기 일쑤이고 같은 말 반복에 치우쳐 강의를 한다는 것이 고역으로 여겨지기 마련이다. 이런 판국에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라는 당부야 씨가 먹혀들어갈 리가 만무한 것이다. 李箱의 『권태』라는 수필이 보여 주는 형국인 셈이다. 이러한 와중에 동시대인으로 베격과 같은 교수가 있다는 것은 반가움이자 또한 경외이기도 하다.

제네바 학파의 알베르 베격에 대한 제자들의 회상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베격은 좋은 스승이었다. 그는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었고 알맞은 질문을 던질 줄 알았으며 자유로운 사고를 존중했다. 그는 학생들이 그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으나 학생들의 생각까지를 억누르려 하지는 않았다. 그의 강의는 다양하고 풍부했으며 깊은 統一性을 간직하고 있었다. 어떤 주제들은 되풀이되었으며 그 주제들은 유년시절이라는 잊혀진 낙원과 순수성에 대한 향수,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 필요성과 안락과 안전함에서 인간을 이끌어 낼 필요성, 정신적인 것의 化肉과 현실이 갖는 가치, 시적 창조와 신비적·종교적 체험의 문제였다.”

좀 길어진 지 했지만 제자들의 회상을 년센스 퀴즈 모양으로 몇 글자로 줄여 말한다면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혹은 “그는 외유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쯤해서 두서없이 벨어 놓은 말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의 대학엔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은 물론 필자의 억측이지만, 설령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대개의 경우 그것은 젊은 영혼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권위’이거나 ‘깊이있는 영혼의 울림’은 되어 주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물론 그것이 어떤 제스츄어나 어느 일방의 노력 그리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막연할런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外遊인 것이다. 그러나 외유는 영원히 외유일 뿐이다. 보다 분명한 것은 대학교수는 강의를 통해 또는 그의 학문을 통해 인간의 넘과 정신력에 대한 믿음을 피력해야 되고, 그것은 젊은 영혼들로 하여금 그 뒤에 괴로운 나날을 버티어 나갈 중요한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생각해 보아라. 교수가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고뇌를 후학들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끝으로 “經師易遇 人師難逢”이라는 동양 고전 속의 말뜻을 재음미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국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있고 성실한 인간 그리고 통일된 조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프랭클린의 말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공부하고 매일 죽을 것처럼 공부할 수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 ■